

# 안전·따뜻한 겨울나기...동절기 종합대책

### 광주시 취약계층 보호·시민생활안정·재난 대비 3개분야 중점 독거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결식 우려 아동 1만명 급식 지원

광주시가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 시민불편 해소,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 등 3개 분야 22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점검을 실시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거리노숙인의 보호를 위해 현장대응반을 운영, 긴급지원에 나선다.

방향 중 결식 우려 아동 1만4877명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555곳은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69세대, 사회복지시설 81곳 등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2만 941세대에서는 연탄과 등유 등의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14개 단지 1만5370세대는 공동전기로 50% 지원과 함께 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이 기간 시민생활안정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김장철과 설 명절 전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 식품제조업 등 299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민관합동 특별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겨울철 수도 동파방지를 위해 수도관 및 계량기의 사전점검과 함께 동파 예방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계량기 보호통 및 보존재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 급수에 차질 없도록 기동처리반과 긴급지원반 편성 운영한다.

광주시는 한파와 폭설 등 동절기 재난 대비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급경사지 등 194곳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종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강설예보가 발령되면 제설작업 및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공직자와 자율방재단도 이면도로, 횡단보

도 등의 눈치우기에 참여한다.

농축산시설의 안전을 위해 대설 대비 하우스 등 시설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예방 특별점검과 대시민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해로 인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버스 노선과 차량을 사전 점검하고,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상황 대응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겨울나기가 힘든 저소득·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산구 '2019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표창

### 사업비 2억원 확보

광주시 광산구가 재난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시진)을 수상하고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문화대상'은 사회적 분야에 안전활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광산구의 이번 대상 수상은 민선 7기 김삼호 구청장이 안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취임후 곧바로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청장의 공약은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생활안전신고를 비롯해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시민스스로 진단하여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김 청장은 취임후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마련 21개동 332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점검단을 구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240회 전개했다. 또한 생활위험 요소 2,460건을 접수받아 2156건을 즉시 해결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 정책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후 '시민안전만족도 조사'까지 실시하고 이를 '안전광산 프로젝트 135일간의 기록'이라는 책자로까지 발행, '안전광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

김삼호 구청장은 "시민안전을 화두로 민선7기를 출범하여 광범위한 프로젝트 참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복지 36.5℃ 복지실천사례' 시상식

### 광주복지재단 공모전 6편 선정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광주복지 36.5℃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공모전은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관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수 복지실천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34편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과정을 거쳐 당선작 6편(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을 선정, 시상했다.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이혜숙(61)씨의 '행복한 동반자(은퇴를 하면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반자' 사업의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는 "14년간의 동반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은퇴를 했지만 앞으로도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시민과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낀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재단 회의실에서 '광주복지 36.5℃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 광주 서구 '여성·아동 안전골목 프로젝트'

## 서울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광주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가 전국에 소개됐다.

서구는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에서 '여성 아동 안전골목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안전·돌봄·일자리사업 등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의지를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서구는 지난 10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여성친화도시 안전분야 우수사례 대회에

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구는 2016년부터 '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다섯개의 여성아동 안전 친화마을을 조성했다. 또 여성친화기업 인증·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확대·생리대 무료자판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서구 관계자는 "우리 서구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외국인 119 신고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개선

## 市소방본부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간담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외국인의 119 신고에 따른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개선에 나섰다.

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외국인들의 119 신고와 이에 따른 상황관리 개선을 위한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4개 언어권 3자 통역 도우미 20여 명과 119 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의 119 신고 관련 다

양한 사례 검토와 119 상황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12번째 외국어 통역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개국 57명의 통역도우미가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통역도우미들은 외국인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학, 터미널 등에 홍보물 비치 등 119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산구 장자울 마을 '한울타리 돌봄'

### '행안부 공동체 우수사례 한마당' 대상

광주시는 광산구 장자울마을이 '2019 행정안전부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한마당'에서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공동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광산구 장자울 마을은 전국 시·도별 대표 17개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장자울 마을은 '한울타리 돌봄'이라는 마을 내 돌봄을 실현하는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한울타리 돌봄'은 방과 후 마을 아이들 돌봄부터 간장·고추장 만들기, 김장하기 등 어르신과 함께하는 돌봄, 마을 텃밭바꾸기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돌봄 등 세대를 뛰어넘는 사업이다.

장자울 마을의 이번 수상은 최근 인구절벽 문제가 국가적인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마을 돌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한 대안으로 주목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광산구 '행운목 만들기 프로젝트' 등 2개 마을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마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2013년 3개 마을, 2015년 11개 마을, 2016년 15개 마을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돌봄, 여성역량강화, 성평등 마을 3개 분야 19개 마을을 선정하고 이중 14개 마을을 씨앗단계로, 5개 마을은 특화단계 등으로 구분해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심화와 청년인구유출에 대응해 임신, 출산, 돌봄, 육아 등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과 일자리, 주거, 보육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화이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